



이름?

이천기(李天起)입니다. 하늘을 일으켜세운다... 너무 거창한가요? ^^;;

생년월일?

1984년 4월 10일이에요. 대학말로 하면 순수한 '현역' 이랍니다.

출생지?

인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학교 주변에서 닭볶음탕 할까, 동학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제 3월이면 서울배움터 영어학부 03학번이 됩니다. 1학기 수시로 합격했지요,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지 않나고요? 에이~ 우리 '이해찬2세대'는 1학기 수시에 서 합격하면 그 학교로 입학할 안하면 안돼요. 염려불들어주세요, 태어나서 가장 기뻐던 일이 수시 합격했을 때인걸요.

취미?

지금은 별로 하지 않지만... 스타크레프트!
고기때는 한동안 중독중에 걸려서 고생했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인물?

조앤 롤링이요. 무슨 학자 이름이냐고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지은 작가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해리포터를 모르면 간첩이지요 ^^

사회에 대한 생각?

최근 일어나는 촛불시위에는 제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요. 사회에 대해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도지요. 우리사회는 많이 변화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노무현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도 긍정적으로 봐요. 좀 새로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해를 되짚어보는 다짐?

대학생은 사회인의 성격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욱 자율적이요 또한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생활... 무덤덤함까지도 하겠지만, 신지 흥분되는 걸요? 빨리 시터에 가서 '대학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작
양향모 기자

2009 오대학보

등록금, 그 팽팽했던 대립의 기록

춘투(春鬪), 대학에서 연초마다 일어나는 등록금투쟁을 가리키는 이 말은 2002년 외대에도 예외의 적용됐다. 외대학보는 1학기 시작할 때(1990. 3월 4일자)부터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전(전00. 6월 3일자)까지 1년의 기획기사와 연의 보도기사로 뜨거웠던 학내의 등록금투쟁을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2002년은 등록금조정위원회(등록위)가 설립되면서 등록금조정위원회(등록위)와는 다르게 예산안을 심의·조정해 등록금을 결정하는데 학생도 참여할 수 있었다. 799호(3월 4일자)의 주제기획 「등(登)등록금이 계속 오르지」는 학내구성원들에게 등록위가 무엇인지, 등록금에 대한 주요요령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양배울터 총학생회 간부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기획기사는 한국지배회 대학인문위원회가 주최한 제 3회 한국대학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1학기가 시작되기 전, 대한민국은 학사일정 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말의 이루어지지 않을 새해'는 개혁점으로 발송한다'는 걸출한 무한한 새 일일적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6.8%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반발, 양배울터 총학생회는 3월 4일 일일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침묵의 날'을 열었다. 800호(3월 11일자) 대학면의 머릿기사 제목은 '양인 입학식 중단, 등록금문제 가시화', 당시 학생들의 침묵시위를 참지 못한 총학생이 이사장이 사장에서 피청하면서 양배울터는 입학식이 중단되는 파장을 겪는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801호(3월 25일자)의 1면 제목은 '양인-27·28 총파업, 서울-26 비상학생총회', 양배울터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개강투쟁포스터'와 '양산 7000실천의 날' 행사까지 열려 총학생회, 동양학대장, 인문대장 3명이 사발을 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당시 서울배울터에선 비상학생총회를 상사시키기 위한 강의를 신진진이 진행했다.

열흘이 넘는 단식을 진행하던 새 명의 학생대표들이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학당국은 9차 등록위를 개회한다(802호, 4월 1일자). 하지만 양배울터 외대교육방송국의 촬영문제로 처음부터 미찰을 빚던 대학당국과 학생은 등록위가 연기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학생의 요구를 놓고 또다시 들을 돌렸다. 당시 이틀동안 진행된 양배울터 총파업은 전년도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행사가 기획돼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서울배울터에선 비상학생총회가 열렸다. 노천극장에서 모인 800여명의 학생들은 "근거없이 올린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라"며 대학당국을 규탄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발행된 802호는 만우절에 발행한다는 점에 착안, 가장으로 쓰는 등록금 기사로 등록금문제가 완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희망을 담기도 했다.

803호(4월 8일자)는 '등록위, 의견접근 비판'이라는 희망적인 제목으로 발행했다. 4월 3일 열린 10차 등록위에서 학생들에 대한 대학

당국의 사과가 이뤄지고, 학생들도 무제한 행동을 사파함으로써 양인배울터 총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중우위들은 이날로 단식을 끝냈던 중, 양배울터는 2001년 대비 인신분에 대한 재단책임을 요구했고 양배울터 총학생회는 중앙리간들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과 피직공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파란분은 조규철 전 총장에 의해 다시 빨간분으로 변했다. 805호(5월 6일자) 1면 제목은 '조규철 총장, 등록위 소집 거부'였다. 당시 조규철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양인적으로 '피직공 10억원과 용인도서관 설계비용 9억 2천만 원'을 예산에서 제외하되, 26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동의할 구하드록 한다'고 발표한다. 이에 반발, 학생대표들은 학교총회에 '아직 끝나지 않은 등록금투쟁'이라는 제목의 공동투쟁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등록위 운영에서 드러난 총장의 독단을 규탄하며 등록위 재가동을 주장했다.

하지만, 춘투(春鬪)는 정쟁 발을 넘기지 못하는 것일까. 긴박하게 돌아갔던 1학기에 비



해 2학기 외대에서는 등록금투쟁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학당국은 여름방학 중 등록금의 2%에 달하는 15억 2천만 원을 보충외의 계획로 임금상하는 방법을 이용해 등록금투쟁의 무력화를 시도했

총장이 선출되기까지...

2002년 5월, 우리학교는 앞으로 4년동안 우리학교를 이끌어 갈 총장을 선출했다. 지난 2학기부터 인기를 시작한 양배울터 7대 총장은 이미 94년부터 98년까지 우리학교 총장경쟁이었고, '결과적으로' 학생·교수·직원 3주체가 모두 선택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외대학보는 총장선거를 독자들에게 알려달라는 아니라 2편의 기획을 보도, 화두를 제시하려 노력했다.

지난 4월초 교수협의회(교협)는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 외대학보 803호(4월 8일자)는 대학 3주체의 대표를 교수만 뽑는 모순에 주목, 학생과 직원도 총장 선출에 참여하라는 화두를 던졌다.

주제기획 「총장은 교수만 뽑나...」는 당시 노조기부장과 양배울터 총학생회장의 「총장선출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았으며, 학생·교수·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95%가 동의하는 현재 선출방식에 교수는 82%만 동의하는 양상을 보여 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으나, 기사는 조선대학교의 총장직선제 사례를 분석해 총장을 선출하려면 민주적인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외대학보의 문제제기는 직원과 학생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었다. 5월 2일 열린 교협의 총장후보선출에서는 총 11명의 후보 중 양배울터, 양배울터, 양배울터 후보가 선출됐지만 양배울터가 단독적으로 기권수, 김경수, 박규하, 박철, 양배울터 후보를 선출하면서 처음으로 총장후보선출을 시도한 것. 805호(5월 6일자) 주제기획에서는 당시 인터뷰할 수 없었던 후보들을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후보들의 각 사안에 대한 다른 입장으로 인해 독자들도 이들을 검증할 수 있었다.

5월 7일, 서울배울터 총학생회 또한 자체적인 총장선거를 열기로 결정하고 총장후보토론회를 열었다. 높은 관심속에 열린 토론회는 그러나, 초창반은 이문배 후보와 박철 후보가 불참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초점을 거둬들이며 "유권자가 아닌 집단이 주최하는 초정토론회는 무의미하다"고 말한 당시 박철 후보의 말은 총장선출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의 당위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협에서 주최한 총장후보 토론회에는 후보 전원이 참석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 804호(5월 14일자) 정점면에서 두 토론회를 심는 외대학보 기자들의 마음은 못내 쓸쓸했다. 대령스럽게도, "우려했던 일은 없었다." 안

별만 당시 후보가 교협·직원노조·학생대표자회에서 각각 실시한 총장투표에서 모두 최다 득표를 거두어 사실상 총장으로 선출됐을 때, 805호(5월 21일자)에 실린 '총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특별 부록칼럼의 첫 문장이자, 이 칼럼에서 외대학보는 "우리는 '우리'들의 총장을 원한다"며, 자기총장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학기 개강호(811호, 9월 22일자)는 양배울터 신입생총장과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외대의 청사진을 살펴보았다. 양배울터는 인터뷰에서 "외대는 현재 최지점에서 '외대'의 현실을 진단하고, '특성화'를 반드시 (학교) 정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811호는 또 한 번 같은 지면을 할애해 구성원들이 신입생에게 바라는 요구를 다양하게 담았다. "친근한 총장이 되어달라", "말단 직원의 월급 부담이 없는 총장이었으면 한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군소학과의 지원



을 부탁한다"... 총선 요구들은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외대의 발전에 목말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이었다.



새터부터 세민전까지, 연례행사인 학내에서는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진다. 외대학보는 여러 축제들을 매년 사진으로, 때론 신기한 기획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줬다.

새터부터 세민전까지 축제, 축제, 축제!

3호(4월 4일자)는 사진기적으로 산소화 번의 풋풋한 모습을 담았다. 슬기로운 이기지 못해 뻔이버린 새내기 모습과 어색함을 감내하며 기회인 공연장면, 공연을 바라보는 기이한 표정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5월, 양배울터에서는 대동제가 열렸다. 외대학보는 두 번의 신문 통해 그 풍경을 담았다. 먼저 열렸던 서울배울터 대동제는 '비'라는 약재를 맞아 대체적으로 참여가 저조했고, 초대가수 이준현의 공연으로 그나마 별다른 분위기를 모면할 정도였다. 807호(5월 21일자) 사진기적의 제목

을 '빛속 대동제, 풍년기리는 기우재?'라고 뽑은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반면 양배울터의 대동제는 화창한 날씨에서 진행됐다. 외대학보 808호(5월 27일자) 사진기적은 한 파의 이색 못 입고 오기 행사에서 여장을 하고 온 남학생과 새내기들을 입은 여학생의 기발한 표정을, 사람들 하를 날리는 자이로 덤요 등 대동제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을 담아 온 모습을 담았다. 양배울터 정기행사인 양산제전이 열린 9월 중순, 외대학보 기자들은 '제전을 신선했다'는 감정을 담았다. 그 다음 날은 양배울터 10월 12일, 외대대 대표하는 축제의 세계인 속화문화축제(세민전)이 그 막을 올렸다. 816호(10월 15일자)는 연례로 펼쳐 세민전을 다룬 사진기적은 각 국가의 민요와 춤을 공연하는 학생들의 표정을 담아내 그들이 외대인임을 증명해냈다.

또한 사진기적으로 각 국가의 민요와 춤을 공연하는 학생들의 표정을 담아내 그들이 외대인임을 증명해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짝옥~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외대학보 기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해에서 벌어지는 행정상의 불합리와 여러 불공정한 사안들을 밝혀내고, 사생활에 관한 정문은 지양만 지나면 굳게 닫힌 학생들이 답을 내놓아야 하는 불편을 지적한 사안이 특히 서울배움터의 경우 12시간 개방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학칙, 부속특규 제정의 기사에 실린,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직원 때문에 억울하게 제직 당한 학생은 기사가 나간 후 교무처가 실수를 인정하며 ‘복직이 가능하리다’고 밝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훌륭한 교수를 뽑을 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교수님이랑 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 외대학보 801호(3월 25일자)의 주제가 ‘교수인물, 공정성을 부탁해!’의 소개글이다. 당시 특약연예대학원 한노교 교수인물과정에 공정한 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한 외대학보는 문제제기한 3명의 지원자·최종인용자·심사위원과 대외담당국을 다양하게 취재해 독자들에 소개했다. 한국기자협회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정한 ‘제3회 한국대학 기자상’ 대상의 영예를 누리기도 한 이 기사가 나가고, 또한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며 지난 12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지원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관련된 벌칙에 대해 대외담당국은 충고하겠다는 입장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 학교총재직이 바뀌면서 외대인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외대발전을 위한 재원이라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던 공간이 사라졌

던 것. 대신 학생·교수·직원의 게시판이 철거되고 분리되고, 열람시에도 로그인을 해야하는 등 자유로운 자유게시판이 만들어졌다.

외대학보는 대외담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자유게시판을 살려주세요!’(805호 주제가), 5월 6일자로 비판했다. 이후 몇몇 학생들이 열람하기 도 했지만, 대외담당국은 아직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811호(9월 2일자)의 ‘정계위원회도 정계먹어야’란

기사에 의거한 대외담당국 간부들이 매달 내리던 정계의 철차가 ‘외대일람’에 명시된 학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집은 기사였다. 피계되었던 총학생회 간부들이 못했던 사실을 ‘대일람’을 뒤져 파악한 후, 철차를 지키지 않은 기사가 정계위원회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계위원회도 정계먹어야’라는 제목이 탄생했다.



한해동안 외대학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한 관심 또한 기울이지 않았다. 여성·장애·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주목하고, 그들의 입장을 널리 알렸다.

여성에 대한 관심은 두드러졌다. 800호 특집

언론이여, 약한자의 편에 서라

성들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기사를 담겨서 이 내용은 800호(6월 3일자) 사회회와 여성의 권리? 남자가 알아야 나남! 으로 이어진다. 기사는 이례적으로 여성들이 입학원칙을 많은 우리학교에서도 크게는 총학생회장, 작게는 교회장 등으로 상징되는 ‘여성대상’의 비율은 극히 소수라는 점에 주목했다. 진보적인 대학에서도 남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이 기사는 전체 재학생 중 50%나 되는 여성들이 대표비율은 17%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명백히 보여주었다.

서울배움터에 학생위원들이 주축한 ‘제1회 여성문화제’가 진행되며 10월호, 외대학보 기자들은 전단지를 우선히 들여다보며 편집회의를 열었다. 일주일 후 발행된 816호(10월 15일자)에서는 생리대가 “나를 구박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다. 사회회기 ‘나, 월경일! 당연히 말하지 않으’는 월경일을 “그 날”이라고 부르려는, 우리사회의 월경에 대한 금기에 주목한 기화. 남성중심적인 사회 안에서 월경에 대한 억압적인 인식이 만들어졌음 표집은 이 기화는 딱딱한 기사체를 지양하고 ‘생리대의 1인 독백’으로 사후에 많은 호응을 받았다.

용인배움터에서 신생원(사유립·서반이이02)군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다. 저재정자인 신군은 외대학보 창간기념호인 804호(4월 15일자) ‘외대는 장애인출입금지 학교?’라는 특집기사에 기자와 함께 동행하여 장애인에 배려하지 않는 우리학교를 지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학생들은 신군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사는 “기사를 호소력있게 전개하며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제 3회 한국대학기자상 취재보도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외대학보는 해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다. 지난 2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집회 발생했던 799호(3월 4일자)는 장부하 철도노동화 논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단순한 철도노를 장사의 대상으로 보는 장부를 비판했다. 이어 802호(4월 15일자)는 당시 산재파업중인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만나 그들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민영화와 반대하는 원인을 전달했다.

‘전국농민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 발행된 818호(11월 12일자) 사회면 ‘썸머 개방피...농업은 끝이야’ 기사는 ‘썸머 고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여주군의 한 이장과 함께 동행하며 파탄지경에 이른 농촌의 상황과 쌀개방에 불안해하는 농민의 절망적인 심정을 담았다. ‘썸머 개방피...농업은 끝이야’라고 기자에게 한탄했던 이장의 말은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이용됐다.

반미의 생생한 흐름을 알려내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반미’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2월, 동계올림픽에서의 쇼트트랙 금메달 강탈사건, F-15기 강제로 이종전 반미의 흐름은 촛불시위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 2002년, 외대학보도 그 한가운데에서 생생한 반미의 흐름을 기록했다.

외대학보가 처음으로 반미를 ‘해보’한 것은 1학기 개강호인 798호(3월 4일자)에서였다. 1월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발언한 부시 미 대통령이 한때 우리 나라를 방문할 당시였다. 799호는 당시 열렸던 ‘부시반대국민대회’를 르포로 담아내며 “한-미간에 체결될 지 모르는 반미축 협상을 막자”는 국민들의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부시의 반미적인 부시 미 상공회의소를 절거한 우리학교 학생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3월말, 우리학교에서는 대외연총학생회 주최로 미국의 패권정책과 한반도 평화방안에 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재인원인 김민

웅 목사와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한 이 토론회를 801호(3월 25일자)는 ‘미국은 지금, 체제위기 속의 반동적 폭력체제’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우리학교 정교과를 졸업한 김민웅 목사는 이 자리에서 “부시정권이 강경노선을 고집할수록 지도적 지위가 중요하다”며 “미국이 지금 ‘역설적 해체’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2학기 외대학보는 ‘주한미군 증원 압사 사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뤘다. 812호(9월 10일자) 사회기회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에서 부친한 ‘미산·효산’ 사진전을 비교하며 여러 외대인들을 취재해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목소리를 냈었다. 이어 815호(10월 9일자)에서 당시 열렸던 ‘전국대학생총회’에 동행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취재했다. 기사의 제목은 ‘내 자식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815호 국제면에는 김민웅 목사가 미국에서 보내온 원고지 2매가 기사의 끝 실리기도 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본격화되던 당시, 김민웅 목사는 글에서 “부시정권은 여러 명분을 내세워 자국의 전쟁정당성을 미화시키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중동의 자원장악, 군사산업의 확대, 미국의 세계적 패권강화”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반미리뷰... 죽어도 좋아!’ 2학기의 마지막 신문이었던 822호(12월 10일자) 주제가 ‘외대’였다. 장갑차를 운전한 두 미군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후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확산되던 시절, 외대학보는 해내로 소식을 맞추었다. ‘쇼파게정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이창희교수와 ‘양크로다 구석’을 작곡한 우리학교 졸업생 백재길씨, 그리고 다양한 외국인 학생·교수를 인터뷰해 ‘외대인이 생각하는 반미’를 짚은 이 기획은 과격적인 편집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외대학보의 새로운 시도는 계속된다

외대학보는 신년호 1편을 정면반쪽 혹은 전면시진으로 정하는 전통이 있다. 발행된 2002년 신년호(788호, 1월 16일자) 1편에는 한 여고생이 손을 모은 채 어엿 입술을 살짝 깨물며 앉아 있었다. 당시 우리 학교 수시모집에 응시해 면접을 보던 여고생의 사진이 화보로 등장한 이유는 채찍질 및 언어는 건강장과 섹스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신년호 2호 후보에서 걸머는 진화들은 대부분

본 “그 여고생은 합격했는 거”였고 그 공중중은 3월 발행된 800호(3월 11일자) 특집신문에서 풀었다. 대학의 3주제 학생·교수·직원의 신문인 외대학보를 보완하기 위한 1편 화보에서 수시모집 면접시간의 여고생은 “독일어와 02번호 이세로” 소개된 것이다.

“화보가 나온 후 지도 모르는 사이에 재 일 줄이 알려졌어요. 주위의 뜨거운 반응으로 재가 외대학보의 도판이 되었다”고 이걸이 낱조” 속사리하며 당시의 ‘조각을 밝히는 이 세원(시상·독일어) 02번호’는 “진짜들에게 재 일 줄이 알려졌어요. 화보가 재 일 줄이 될 수 있었어요. 함께 사진보도보에 왔던 교수님도 친분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며 웃었다. 외대학보가 만들어 준 그녀의 나쁘지 않은 ‘뜨거운

기인 셈이다.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신문은 아마 2학기 개강호가 아닐까. ‘외대학보’가 발행하고 있기 개강호가 아닐까. ‘외대학보’가 발행하고 있기 개강호가 아닐까. ‘외대학보’가 발행하고 있기 개강호가 아닐까.

‘학성·교수·직원 3주제와 함께한 좌담회 기사에서 외대학보의 방향성은 “기자와 시대 변화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으로 요약됐다. 학보의 방향을 추진하게 된다면 기사는 학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대학원생에게서도 화제가 되었다. 특히, 통신문은 ‘이행’을 사용해 제작한 ‘외대학보가 심기 이 행

하오’라는 수습기자 모집광고는 세새기들의 주목을 끌었고, 많은 수습기자 지원자가 불러 기존의 기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었다.

‘읽히는 신문’으로 거듭나려는 기자들의 노력은 2학기 내내 과격적인 편집과 다양한

스타일의 사용으로 이어졌다. 독자들에게 의한, 독자들을 위한, 독자들의 신문 외대학보의 새로운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

1955년 타블로이드 4면의 월간으로 시작해 현재 매주 8면을 발행하고 있는 외대학보. 외대학보는 2002년에도 ‘자유 언론 정론지’의 한 길을 걸으며 ‘학내·학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보도하고 담론을 생산했다.’

지난 한 해 외대학보의 발자취를 몇 가지로 나누어보았다.

▶ 제작: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김종훈 기자
yonghun2000@hanmail.net

외대학보 579

총학생회, 넌 아냐? 난 안다!

학생회가 학생들 좀 점지 리되어 간다는 비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편의 앞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은 주 독자층인 새내기들에게 학생회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회의 역할, 체계, 활동방식을 소개한다. 이번 기획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학생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한다. 편집자

첫 번째 이야기

총학생회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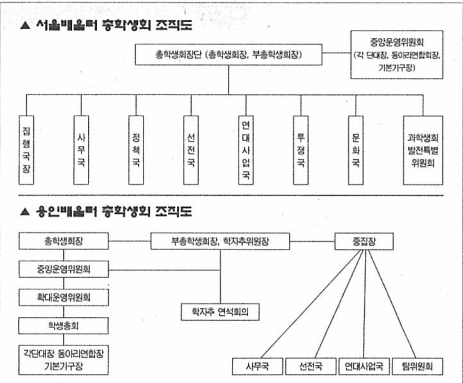
도대체 학생회란 무엇인가??? 3월... 학교에 입학하고 새내기들은 1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학생회 사업을 통해 학생회와 존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학생회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학생,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자주적인 공동체입니다. 학생회는 1938년 외대의 수많은 '이해와 요구'들을 수

렴해 공동체의 힘과 지혜로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전체이며 학생들과 공통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죠.

학생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학생회에서 보이는 일들을 학생회 '사업'이라고 합니다. 학생회 사업은 크게 '생략적인 것, 학문적인 것, 투쟁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외대인들의 복지와 관련한 생활적인 문제들 △교육의 질적 개선, 취업 문제 해결방안 등 학문적인 문제들 △등록금 인상문제, 재단문제와 관련한 학교측과의 대립에서 불가피한 투쟁적인 문제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써의 권리를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는 역할들을 학생들의 대표인 학생회의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학생회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공유와 관심, 참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리학교 총학생회! 정말 궁금합니다.

1984년-학도 호국단 폐지
11월 난항 속에 총학생회 부활
1985년-20대 총학생회 선거 실시
1988년-3월 총학생회 양 캠퍼스 체제로 분리 모색
: 현 총학생회 서울에 국한된 활동과 용인 체제 격상 등이 분리 이유
1989년-3월 서울배움터 제2대 총학생회 용인배움터 제1대 총학생회 발대식거행
1992년 5월 서울, 20대 총학생회 총사퇴사건. 보광선거 실시
: 등록금 투쟁관련 학생들의 불신임을 얻어
1993년-5월 서울배움터 27대 총학생회 재단 부활
: 박승준 재단장 직무 이사 불신임 얻어
1996년 5월 서울, 30대 총학생회 재단부활
: 박승준 이사의 퇴진과 부활한 재단운영 요구, 관습이새 도입
9월 대학위원회 신설
2001년-11월 서울, 36대 총학생회 선거 최초의 여성 총학생회장 당선
용인, 20대 총학생회 선거 최초의 여성 부총학생회장 당선
2002년-서울을 37대, 용인 24대 총학생회 선거

세 번째 이야기

학생회는 어떻게 운영됩니다!!

새내기들에게는 조금 낯선 학생회의 운영 체계와 회의체계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모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어 궁극적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학생회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인 '총학생회'와 민주적인 의사수령을 위한 '회의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구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총학생회-운영위원회로서의 총학생회는 학

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 이를 실현할 계획과 방법을 논의하는 공민회의 의미를 가진다. 그 구성은 총학생회집행부와 각 단과대 학생회, 과학생회로 구성된다. 각 학생회의 장은 집행부를 구성해 각 회를 운영해 간다. 여기서 학생회장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며 집행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회는 상설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의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각 회의의 별로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운영위원회의(중운위)-가장 기본적인 상설운영기구이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등 기본 가구의 장으로 구성된다. 매 주 1회 소집된다. 단과별 기본적인 사업이나 인권을 논의하고 이를 총학생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학내운영위원회(학운위)-전학내의 다음의 정례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등 기본 가구의 장으로 구성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학운위가 열린다. 학운위는 중운위의 제안 안건을 심의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각양에 의거해 주요안건을 전학내대회에 상정한다. △전학내대표자회의(전학내대)-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매 학기 1회 소집된다. 학생회비의 책정,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안과 사업보고서의 승인, 총학생회의 예산안과 결산안의 승인, 운영진단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단, 서울배움터에만 존재한다) △학생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매 학기 1회 의무적으로 정기총회가 열리며 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학생으로 구성된다. 운영진단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다. 그의, 원할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단위별로 특별기구를 둔다.

그의, 원할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단위별로 특별기구를 둔다. △중요운영위원회(중운위)-가장 기본적인 상설운영기구이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등 기본 가구의 장으로 구성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학운위가 열린다. 학운위는 중운위의 제안 안건을 심의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각양에 의거해 주요안건을 전학내대회에 상정한다. △학내운영위원회(학운위)-전학내의 다음의 정례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등 기본 가구의 장으로 구성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학운위가 열린다. 학운위는 중운위의 제안 안건을 심의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각양에 의거해 주요안건을 전학내대회에 상정한다. △전학내대표자회의(전학내대)-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매 학기 1회 소집된다. 학생회비의 책정,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안과 사업보고서의 승인, 총학생회의 예산안과 결산안의 승인, 운영진단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단, 서울배움터에만 존재한다) △학생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매 학기 1회 의무적으로 정기총회가 열리며 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학생으로 구성된다. 운영진단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다. 그의, 원할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단위별로 특별기구를 둔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두 눈 뜨고 살펴보자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 공약	서울배움터 37대 총학생회 공약
-전투적 학생화노선 폐기	-학생회권 구 본권으로 이전, 공민문제 해결
-3002부 새우기	-외대 부속의 교육과정 재검
-대표성없는 권위적 대의체제 해체 및	-등록금 3회 분할납부 도입
직접 표결 시이며 학생회 간접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 반대
-등록금투쟁의 속전속결	-취임정보센터 위상과 재정적 지원 확대 모색
-100%의 학문/문화공공체 참여	-도서관 사석화 방지 및 금연 캠페인
-연준문화공공체 기획	-교양수업 디딤돌, 강의평가
-왕산 문화복지 문화의 광장 캠프 운동	-고인원 개선 및 지원
-마스터플랜, 설계조각도	-학생회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방도 모색
-듣고 싶어하는 심화과정 개설	-과학생회의 참여는 총학생회
-공영시대, 특별발전	-여학생을 위한 반성록 학생회 재정
-중복학과 통합학과 왕산 발전안 투표등도 결정	

위키만 하면 다 맞춘다

- ➔ 가로열쇠
 1. 용인배움터 학생들이 9월말 찍수년도이다 행하는 행사
 3. 외대인들의 축제
 4. 외대의 반대말
 6.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7. 부당한 것은 못 참는다 새학기 대학가의 첫날들
- ➔ 세로열쇠
 1.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휴수년에 세계민속공연, 세계영화 등 세계각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
 2. 농촌에 가서 농민들과 함께 농기일을 거두고 농촌의 현실을 배울 수 있는 활동
 4. 새내기들을 맞이하는 학생회의 첫 사업 동기와 선배들의 첫인상
 5.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서울배움터에만 존재)의 졸업말

네 번째 이야기

학생회는 년두한 무슨 일을 하나요??

2월 새내기들의 대학생활의 첫 만남! 새터!

새학기 새로배움터(새터)가 새내기들을 맞이하는 학생회의 첫 사업이다. 새내기들에게 외대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과 학생회를 비롯한 선배라고 불리는 외대기와 새내기와의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새터의 취지이다. 2월 20일경 배움터마다 천 9백 여명의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매년 치러진다. 방학중 학생회는 새내기 준비 위원단을 만들어 날짜와 장소,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운다. 노래패와 풍물패 등 두달에 걸쳐 준비한 중앙공연이 치러지고, 행사의 마지막에 과별로 오묘한 뒷모습을 가진다.

3월 저희를 위해 써 주세요! 등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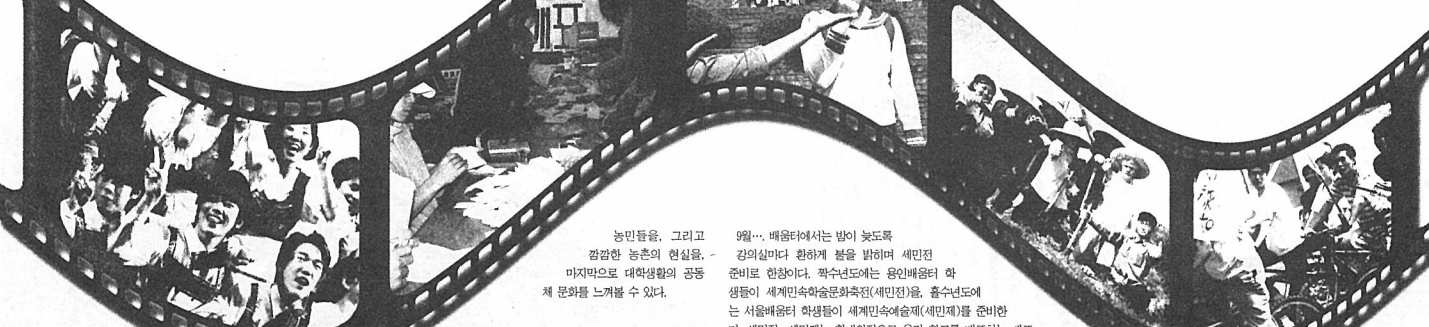
새 학기에 접어들면서 걱계되는 대학 등록금과 첫 걸음인 등록금 무쟁,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재정 확보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학교측과 재정의 불투명성, 학교측의 일방적인 고지서 발송과 등록금 인상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팽팽한 줄다리를 잇는다. 학생회는 외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실어 등록금 투쟁을 위해 학교측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4월 우리는 4·19 정신을 위해 댄다!

'미연의 혁명'이라 불리는 4·19 혁명, 민주화를 꿈꾸던 열사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학생총회는 이 행사를 준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용인배움터에서는 해방광장에서부터 모현까지, 서울배움터에서는 노천광장에서 수류기 4·19 혁명 기념 포여까지 4·19를 기념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5월 외대인의 대동단결! 축제!축제! 대동제~

고등학생 따위를 때고 처음 느껴보는 대학생들만의 축제, 대동제, 화과공부, 토의, 취업문제 등... 학업을 벗어난 3일간의 행락한 일탈! 축제! 학생회에서는 대동제 준비 단장을 조직해 매년 오월 대동제를 준비한다. 대동제는 5·18정신을 계승시켜 자유로운 대학인들의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한다. 영화제, 풍물, 율동제 공연과 여러 동아리 행사가 열리고, 동아리와 각과에서는 다양한 풍물 음식전과 먹거리를 준비해 학생들의 반갑을 준다. 5·18 거리전, 6·15주점 등 다채로운 거리 행사도 열린다. 축제의 마지막 날은 초대가수의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다.



6월 9박 10일간의 농민과의 동고동락! 농활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년에 4번 농촌민생현안대응(농활)을 한다. 총학생회는 농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재단의 준비를 한다. 농사를 밟고 오는데는, 농사 체험에 대한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시작되는 농활, 피곤기, 감개기, 마음정소 등 낯선 농민분들을 도와 농기일을 거든다. 밤에는 '가기호호' 농가를 방문하며 어르신들과 쌀수입 개방 문제, 농가부채 문제와 같은 농촌의 현실을 배운다. 농활을 통해 정겹고 훈훈한

8월 민족의 화합과 단합! 8·15 통일축전!

8·15 통일축전은 통일을 위한 범민족적인 거리 행사이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매년 행사장은 활기를 띤다. 축전답게 풍물패와 놀이패 공연, '통일노래 선전', 피포티 등 색다른 문화행사가 열린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전 거리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9월 외대의 자랑! 세민전, 세민제!

9월... 배움터에서는 밤이 늦도록 강의실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며 세민전 준비로 한창이다. 짝수년도에는 용인배움터 학생들이 세계민속문화축전(세민전)을, 홀수년도에는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세계민속문화축제(세민제)를 준비한다. 세민전-세민제는 학내외적으로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오랫동안 자리매김 해왔다. 행사의 주된 내용은 세계풍물음식전과 세계민속공연, 세계영화제로 구성된다. 대부분 과 학회를 중심으로 아문계 학과들의 다양한 문화 공연과 동아리 행사, 노천에서의 영화, 음악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린다. 작년 양재교육문화회에서 열렸던 세민전은 '한지리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공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1월 내가 밝은 학생회! 비판과 공론도 내가 한다!

11월은 학생회 선거가 있는 달이다.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산관위)를 조직해 본격적인 선거준비를 시작한다. 선거는 총학생회, 단과 학생회, 과 학생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각 후보자들은 선거유세에 들어간다. 총학생회 선거기간 중, 언론협의회와 중장년거버넌스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정견토론회를 가진다. 정견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은 공약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 양 배움터에서 9일간 진행되는 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이다.

외대문학상

서른아홉번째

|시|수필|소설|평론|

당선작 - '청량리역에서' : 최해원(동양·일본어 97)

청량리역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둠 속에서
뒤엎힌 질서 속에서
날을 세운 채 붉게 빛나는 철로를 바라보며

이봐, 벌써 겨울이야.
내 삶은 아직도 여름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데

서울의 한 귀퉁이, 좁고 긴 골목들
그대의 빈 가방과 낡은 신발과 외투와
기울어진 어깨 너머 적막한 광장을 가로지르면

먼저 떠나간 사람들의 발자국,
철학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활과 품돈과 고단한 휴식만 있었던
서울의 한복판에서, 숨막히는 날들 속에서

알아, 그대가 버리고 싶었던 건 그대의 삶이 아니라
추억담처럼 낡고 해진 우리의 꿈이었다는 걸.

저 길이 오늘 몇 개의 인생을 막다른 삶 속으로 실어보냈는지,
길이 끝난 곳에서 아픔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지, 희망은 고향이 아니라 두추한 가슴이 아니라
그대의 마른 정신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여기로 오지마 아무도 너의 이름을 잊지 않았으니까.

사벽 0시 15분
마지막 열차를 떠나보낸
청량리역에서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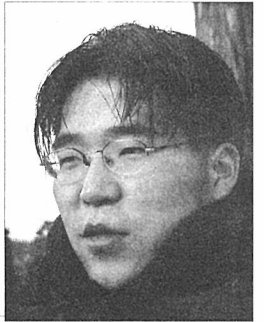
제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농사법과 농기구가 필요하지만, 간편한 농기구만을 이용하는 농부도 다라 있을 것이다. 알은 땅만 파며 쉬운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육신은 덜 고될 터이지만, 농작물은 튼실한 뿌리를 받기 힘들 것이다. 탐스런 열매 또한 알기 힘들 것이다. 그런 농사법으로는 대지를 통한 우리 삶의 건강한 순환은 커녕 대지의 순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크게 보면 그것이 어디 농부 혼자만의 불행이겠는가. 시를 쓰는 행위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습작을 하는 사람이든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기존 시인이든, 시를 쓰는 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시적 세계나 시작법이 독자를 동지고 있다는 충고를 종종 듣는다. 읽는 사람들에게조차 바거운 그들의 시는 가장 젊은 아들과 딸이 있는 부리에만 존재하는 그 무엇일지 모르겠다. 정신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벼운 유희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각도를 하듯 자신의 존재를 다른 존재와 뒤섞어 본 자만이 이를 수 있는 시적 세계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청량리역에서'를 당선작으로 뽑는다. 다소 거칠고 상투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시를 쓴 사람의 정신적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알개 모르게 온갖 종류의 속도에 떠밀려 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 시를 쓴 사람의 시선은 더디게 움직인다. 매 걸음마다 의미를 찾으려는 듯 움직일 또한 더디고, 희망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더디게 가려 하는 지의 개성이 전해진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빈드시 자신이 가진 상투성을 극복해야만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겠다.

조 은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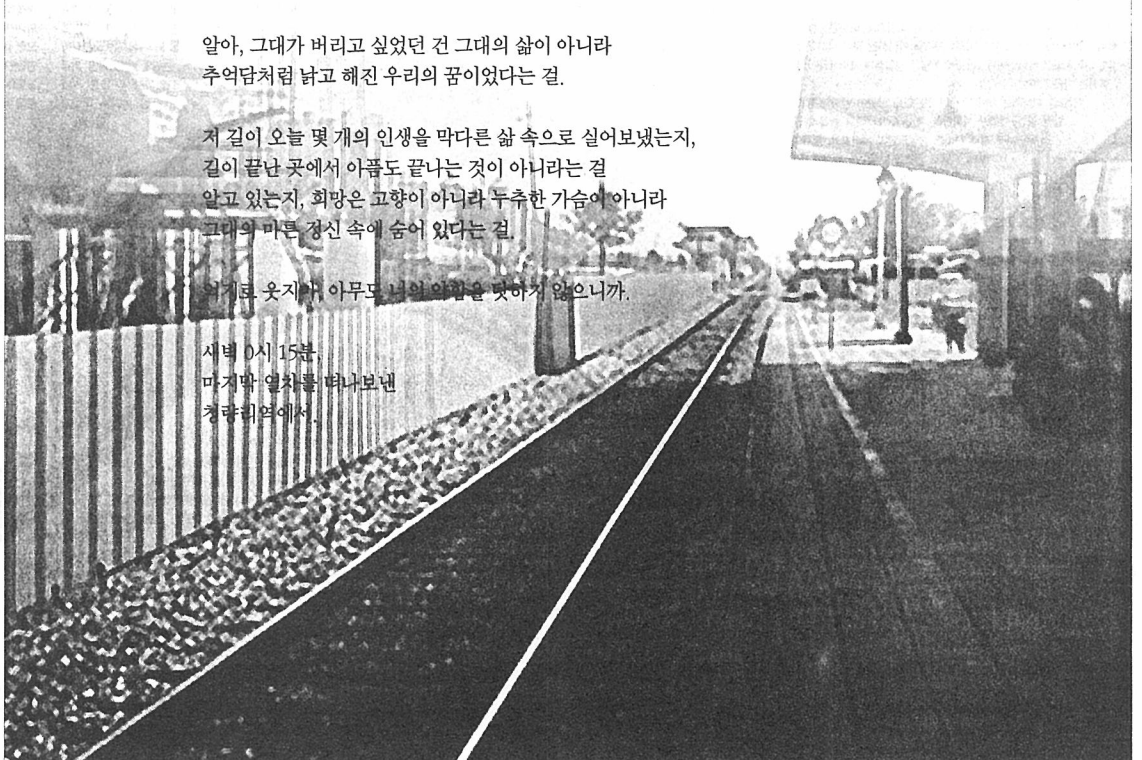
수상소감



최해원
(동양·일본어 97)

'청량리역에서'는 도회의 생활로부터 오는 가벼운 절망과 무거운 우울을 디톡하는 시다. 그 주인공은 나일 수도 있고 당선일 수도 있고 당선자의 형의 친구의 사촌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희망과 절망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으로, 그것들이 단속적(斷續的)으로 되풀이되면서 삶은 그 빈틈 속에서 진행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시를 쓴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부풀리거나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세우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게, 담담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이 시 '청량리역에서'를 쓰는 동안 줄곧 머리 속을 맴돌았다. 지인들은 이 시의 주제와 양식을 놓고 나를 채근하곤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평가로 객관화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부족한 글을 선택 당선작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수필|소설|평론|

가작 - '어떤 슬픔에 대해' : 홍현철(서양·영어 98)

외대문학상

서른아홉번째

어떤 슬픔에 대해

심사평

수필은 주지하다시피 문형식의 혁신이 골쓰기다. 즉 자유로운 글쓰기다. 하지만 필자에게 자유유미가 주어졌다고 해서 글에 대한 가치 평가는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좋은 수필이 있고 나쁜 수필이 있는 것이다. 좋은 수필은 우선, 수필이 자유로운 형식의 장르인 만큼, 개성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문학적 형식적 사유의 산물이다. 수필도 문학의 한 장르이기에 얼마나 글이 형식화를 이루었느냐가 가치 평가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슬픔에 대해'는 자기 가족사를 글의 재료로 다루므로써 특이한 경험을 드러내는 글이 될 수 있었고 개인의 삶에 깊이 숨겨져 있던 체험을 현재의 삶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또한 감정이 생경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글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문체를 유지하였으며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수필 역시 타인에게 공감을 받고자 하는 글인 만큼 설득력을 가져야 하는데, '나의 상처는 바로 치열한 삶의 투쟁으로 고단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슬픔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 글에서의 결정적인 인물은, 이에 대한 형상화가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간과스러웠다. 즉 이 '깨달음'의 순간을 좀 더 조밀하게 묘사한 것이 아쉬웠다. 그림이 이 글을 당시적으로 결정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용모지가 가진 글에 대한 애정과 분투를 더욱 증폭시키고 싶다는 면에서 이 작품을 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글에서 보이는 용모지 필력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싶지 않다. 현재의 삶과 과거의 가족들과의 체험을 되살림으로써 새롭게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세우려는 용모지의 자세는, 글을 쓰는 지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자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은 자기 문체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한편의 완성된 글들이 뿌려지는 느낌이 든다. 이는 용모지가 앞으로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었다. 하지만 이 글의 결정적인 약점을 눈감고 싶지는 않다. 그것이 용모지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용모지의 건필을 바란다.

이성혁 (문학평론가)



7남매중 외동자인 할아버지는 우리역사의 단절기였던 20년대에 태어나셨다. 내가 역사책을 통해서만 알고있는 격변하는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농자천하지대본'과 '삼강오륜'을 깊숙히 신봉하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조선인이다. 세월의 급물살을 타지 않고, 혹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맞고 버린 어떤 아픔과 슬픔을 나는 종종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읽곤 했다. 내가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았던 어릴 적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소 한 마리에 이불보따리를 지우고 우리집에 오셨던 기억이 어렴풋한 잔상으로 남아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와 시집안간 고모들이 우리집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지만, '별칭 있다 할아버지 집으로 가시겠지' 하고만 생각했던 나는 며칠이 가고 한 달이 가도 가지 않는 할아버지에 대해 이상하던 생각만을 했던 것 같다.

할머니가 이불을 쓰고 누워 계셨고, 엄마와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었던 어느 방 안에서 "꽃밭에는..."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어렴풋한 기억이 내가 시골 큰집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기억이다. 훗날 어른들의 얘기로 추정해 보건대, 그것이 아마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던 것 같다. 장남인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고모들이 자랐고, 시집간 어머니의 제비가 묻어있을 그 시골의 큰집. 우리집이 큰집안줄로만 알고있었던 내게 있어 시골의 큰집은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주로 어머니의 입을 통해 내 상상 속에 희미하게 자리잡게된 시골 큰집의 이미지는 주로 어둡고, 침울하고, 가난한 이미지이다. 대가족에 살림은 항상 빈곤했다. 고모들은 농번기가 되면 학교에 가는 대신 논, 밭으로 가 김을 메고 모를 심어야 했다. 할머니는 재사 날만 되면 상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불효령을 듣기 일쑤였다는 말을 종종 목 메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었다. 가난한 농가에서 엄격한 유교적 교육을 가진 어른들을 모셔야 했을 어머니의 외로움과 삶을 또한 한 감히 짐작할 만하다. 고상한 선비가 되는 꿈을 마음속에 키우며 고운 의아들로 자라셨을 할아버지에게 일제와 해방, 그리고 전쟁과 반란으로 이어지며 황폐화된 삶의 집은 너무나도 컸으리라 짐작해본다. 할아버지의 농사는 결국 파산을 맞게 됐고, 아버지는 빛더미를 따내고, 할아버지와 삼촌과 고모들을 부양해야하는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아버지는 매우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청년이었다 한다. 고통 학교를 졸업한 아버지는 시골에서 '병'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처음엔 장사를 하셨다. 그도 실패하지 않아 결국엔 공부를 해 공무원이 되었다. 아버지의 안정된 직장에 불구하고 나와 두 형들이 꼬마였을 때까지 우리집은 매우 가난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공무원의 박봉으로 대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짐작만을 내로서는 할 수 있을 뿐이다. 어머니는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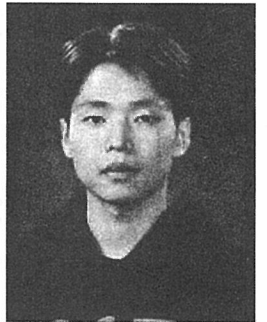
종 간장 한 종지를 놓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 깊고 기운 속웃이 창피해 동료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지 못했다는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 눈을 붉히시곤 했다. 내가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비로소 가난의 그늘에선 벗어났던 듯 하다. 종종 장난감, 좋은 옷 같은 걸 좀처럼 사주지 않았던 어머니를 절없는 마음에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 이것이 어른들의 모진 세월에 대한 인고의 결과임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나의 어린 시절,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간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두터운 벽은 어린 시절 나에게 큰 마음의 상처였다. 가난과 유교 윤리라는 걸치며, 그 부조리는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 청년 아버지에게 송두리째 뿌리뽑히려고만 싶었을 때는 유물이었으리라. 아버지에게, 나의 상상 속에 어두운 형상으로 존재하는 시골 큰집은 성장기의 가난과 슬픔, 모진 고생 다하고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응어리진 '한'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닐까? 그 시골을 벗어난 아버지는 청년시절 기록용인이 되었고, 할아버지가 작은아들, 손자들과 함께 차례를 지낼 때 한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으셨다. 나의 어두운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따뜻한 덕담만 나누지 않으셨고 두 분이 같이 계시는 때는 어색한 냉기류가 흘렀다. 유교윤리만을 믿고있는, 무엇보다 이루지 못하셨던 의로운 할아버지, 성장기의 가난과 부조리를 상처로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두 분간의 단절은 어린 시절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나의 상처, 나의 슬픔이었다.

성장한다는 것은 마음 그득한 상처들을 하나하나 보듬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어느덧 청년이 된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간의 괴리'라는 나의 상처는 바로 치열한 삶의 투쟁으로 고단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슬픔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어른들의 아픔의 대가로 좀더 편안한 삶으로 나는 태어났으니 두 분의 슬픔을 공유한다는 이 노래... 차라리 세월을 관망하는 신이 있다면 그에게 감사드려야할 일이 아닐까. 어린 시절의 그런 상처와 슬픔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치이고 나의 가족, 나의 어른들로부터의 단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할아버지 먼저 잤다 드러라." "애비 들어왔냐?" 라는 말로 두 분은 나에게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곤 했다. 이 두 분의 마음을 이해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 같다. 세월의 간극 속에서 실패한 80대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딛고 가난을 이겨낸 아버지. 이 두 분의 '화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한 존재의 의미가 아닐는지.

수상소감



홍현철 (서양·영어 98)

우연히 쓰게 된 글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한참을 망설임이 났다. 용모지서 공모했었다. 내가 쓴 글이 원지 모르게 부족해만 보였지만 생각해보니 부족했던 것은 글에 대한 내 마음이였다. 책에서든 잡지에서든 어디서든 보았던 깔끔하고 맛있는 글들이 내 머릿속에 '좋은 글'로 자리잡아 있었다. 항상 이 '좋은 글'의 잣대로 내 상상과 마음을 재단하려 했던 것이 나의 부족함이었다. 마음을 다 쏟아내 무언가를 만들고 난 후의 그 후련함이 내가 생각했던 좋은 글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누가 인정해주건 아닌 것까지는 상관없다.

아버지는 내가 늘 존경과 원망과 어떤 갈피어올라야 할 것... 이 복잡한 느낌으로 대했던 분이였다. 이 아버지에 대한 느꼈음을 승화시키는 것이 내가 성취한, 아니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말로 규정할 수 없는 그저 따뜻한 느낌으로 아버지를 대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홀로 선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자의의 간섭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이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그리고 그 역사를 조종해 생각해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이 동화적인 지금이 아니라 역사의 한 부분이었듯이 가족과, 그 역사 속에서 나는 나의 존재의 한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어떤 슬픔에 대해'는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문득 쓰게 됐다. 내가 보기에 원기 매끄럽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글인 것 같은데 이런 상을 받게 돼 기쁘다. 자격이 없는 작은 상이지만 내가 글에서 한 일로 받은 처음 상인 것 같다. 삶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외대문학상'은 나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

외대문학상

서른아홉번째

월드컵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한국적인 현상

|시|수필|소설|평론|

기작 - '월드컵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한국적인 현상' : 조영택(사범·영어교육 96)

심사평

비평(crit)은 위기(cris)에서 나온다고 흔히 말한다. 위기란 여러 힘의 갖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현대 사회에 특이적인 가치관의 혼란과 그로 인한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현대는 뚜렷한 윤리적 가치 판도를 내리기 힘든 시대이다. 그러므로 많은 논쟁이 일어난다. 비평은 이 위기와 논쟁의 시대를 해체·구분 짓 정립을 시도한다.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비평인 것이다. 하지만 가치관의 혼란보다 더 무서운 일은 가치관 세우려는 노력인 비평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위대한 비평은 대중의 냉정한 눈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중의 냉정한 눈으로 일관하는 태도라면 비평이 바로 비평인 것이다. 하지만 가치관의 혼란보다 더 무서운 일은 가치관 세우려는 노력인 비평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중의 냉정한 눈으로 일관하는 태도라면 비평이 바로 비평인 것이다. 하지만 가치관의 혼란보다 더 무서운 일은 가치관 세우려는 노력인 비평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수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상소감을 실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의 월드컵 대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우리는 기적 같은 4강 진출의 감격을 경험하였고 히딩크 신드롬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했다. 그리고 정무후퇴했던 북한 약식의 힘입어는 단숨에 거리를 잃은 세계인들과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때의 일들을 벌써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국가에도 대한경기는 초유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프로축구는 월드컵으로 인한 반짝특수 뒤에 관중들의 싸늘한 관심 속에 시종은 미치고 그동안 소문으로 소문하던 새로운 프로축구팀의 창설도 대부분 제외하고는 소문만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2002년 독일월드컵을 준비한다는 말도 뜸하고 있다. 또한 그 때 월드컵 유치도시로 선정되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막대한 경기장 관리비와 유지비로 인해서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월드컵의 유자와 경기개최 도시의 선정, 운영과 그 이후를 통해 한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하자.

○서울은 왜 월드컵을 유치하였는가?

지난 97년 서울 등 16개 시·군 10개의 월드컵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1997년 12월 30일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울산, 서귀포, 대전 등 9개 도시를 경선행, 지역적 안배, 지지세력들의 월드컵개최에 대한 열기 등을 고려하여 월드컵개최도시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은 마감시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국제축구연맹에 개최도시 선정결과를 보고하는 98년 5월 11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그 포항 여부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위는 포항이 마지막 10개 도시의 순위 안에 들었는지란 우려에 대해, 서울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한다고 하였다. 10개 구간의 전설어선은 약 730km 원래로 추정되며 그 중 70%는 4000여 킬로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각 개최도시별 2~3억원씩을 소외할 것으로 보이며 월드컵이 끝난 후 관리비와 운영방인의 수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인구수가 80만 5천명인 서귀포시에 4천 3백명 규모의 정경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것도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10개 월드컵을 유치한 현들이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 만자 유치만으로 경기장을 이미 설립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크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드컵개최도시 선정과정은 당시 대선이라는 더 큰 이슈에 거머잡혀서 언론에서 자재까지 보도하지 못하여서인지

그 과정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보도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은 분명 개최계획서를 제출 마감시간까지 참여의 뜻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위는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다음날 2월 1일까지 재출 기한을 연장시켜 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서울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를 볼 수 있다. 마치 신사의 전 과정이 서울을 월드컵개최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화한 듯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참여하지 않은 서울은 결국 월드컵 개최권과 존중결정을 유지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비단 월드컵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대회에는 서울의 패배를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성 때문으로 판단해보고 볼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이 선정한 이바라키, 고페, 오사카, 오이타, 시즈오카, 요코하마, 시마네, 니가타, 미야기, 삿포로 등의 10개 도시를 살펴보면 프로축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와 제 2의 도시 미쓰코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각 도시의 특색과 축구의 관련도 여부와 현민들의 생활 및 민자유치정책을 고려한 일본의 결정은 심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19년 노후한 후부가 당선되면서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 예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 현상 완화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공포와 문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적과 현상은 막아야 하는 근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 인구의 4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싱가포르의 홍콩 같은 도시국가들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률이 높다는 일본도 20%가 넘지 않는데 이것은 실로 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모자라고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다른 새로운 학교를 짓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주고 있다.

교육 문제만 아니라 주택, 교통, 지역균형개발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성장에 수도권 집중현상에는 의해서 발목을 잡혀 있는 것이다.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곳에 금융기관의 65.8%, 기업체들의 본사의 88%가 수도권에 있고 주요 대학들과 연구시설도 수도권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무엇이든 좋은 것을 받고 사고 싶으면 수도권으로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월드컵 개최는 또다른 '우리'는 서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압력적인 중의를 재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함은 무서운 정도에서 한국은 정신으로 개최도시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또한 프로축구팀을 이미 개최권과 존중결정을 이루어줄 두께나 갖고 있는 야구의 도시인 서울에 유지하고자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누구의 책임인가?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이어진 프로축구는 월드컵의 후광을 입어서 연이은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 힘입어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축구로 바뀌는 데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5개 스포츠단체들은 축구를 1번에 섰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프로축구는 관중들의 눈에 수에 막

을 내렸고 지금은 어느 신문을 축구팀 헤드라인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인 FA컵이 자못이 모두 버거전 서귀포경기장에서 치러졌다. 이 서귀포경기장은 월드컵 이후 한 차례의 공식 경기나 열사도 열리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올해 경기장 유지, 관리비로 들인 돈은 140억1천만원인데, 월드컵 당시 경기장 사용료 9억원을 빼고는 수입이 14억천만원에 불과해 4억1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 수입도 월드컵이 이전인 2월에 얻은 것이다. 내년도 지방공시 때문에 활용 할수는 크게 줄고 적자는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국제축구연맹(IFA) 월드컵 실사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경기장'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은 축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채 '잠자코 있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각 도에 월드컵 경기장을 한 개씩 짓겠다는 정책적이고 지역 배분적인 결정이 버려진 인적(人)과 환경이 원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월드컵에 관심 있고 자기 지역에서 월드컵을 볼 수 있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누구도 경제적인 문제와 차후 발안에 대한 대안없이 거의 허사로 돌아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않았다. 결과적으로 10개 도시 모두가 한 해 20~50억원씩 드는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무상했던 프로축구 창단의의도 실패 그 부담을 지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초저부담되고 말았다.

재정문제는 국민들이 국가대표대전만을 돈을 내고 보는 편이든 외국의 대가 없이 열린 축구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뜰을 충현해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인기와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무턱대고 경기를 유지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도 각종 엑스포와 전시, 영화제 등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쟁은 열렬하다. 하지만 잘못된 프로젝트의 결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은 구우려던 국민이지만 그 결과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시골도 이러한 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65,656 규모의 상암구장은 월드컵 이후 국가대표경기나 프로축구 클라전에서도 사용되었고 각종 배설시설 활용 안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파경쟁 - 관원은 경기수준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

월드컵 개최 전에는 입장권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선전을 거듭하고 축구 경기관선이 열화 강사이나 유혹을 즐기는 것 보다 재미있는 것을 안 국민들은 10만원이 넘는 입장권을 기꺼이 구입하였다. 여기에 비해 프로 축구 입장권은 5000원이다. 하지만 티켓을 잘 사용하고 구단에 이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경기를 흥분해 즐긴다. 열화보다 생애도 국민들은 경기장을 찾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프로축구 경기를 시청하려고 하고도 않는다.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축구를 사랑해 달라고 경기장을 찾아달라고 해 번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런 적정한 가격 수준을 고집하고 스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시설 투자를 한다면 관중들은 저절로 모일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축구 팬들은 10만원을 지불한다. 그들은 축구포가 오래된 입장권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비니스드 집행회 축구장장이 한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5000원을 내고 호수야외의 활약을 보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구원을 축구장으로 데려갈 사람도 없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그에 관중이 그대로 모이는 것은 투자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이나 남미 같은 수단은 안되지만 1부, 2부리그 유소년 클럽체제가 잘 되어 있고 비록 은퇴하였지만 스타 선수를 데려오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국 축구를 한 사람의 감독과 팀만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월드컵 4강의 신화는 우리 모두가 회고두고 기억하며 자랑스러워해야 할 소중한 경험이다. 특히 16강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현대에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좋은 국인 월드컵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한국적인 현상을 볼 때 반갑은 점은, 바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비평에 대한 무관심을 듣고 다소 감성적으로 차후 볼 수 있는 한국의 월드컵 개최에 대해 비평의 날을 갖다달라고 하는 점이다.

좋은 비평은 보통 1)관객이 있을 것, 즉 주객과 주객이 생경하게 글 전면대 나오지 말 것, 2) 비평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해석, 3)논리를 정제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4)가성적 시각, 5)가성적 가치관이다. 비평가로서 새로운 시도로 비평 대상에 대해 가파르게 행할 것,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도출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교과서적 요건이라 할 수 있지만 비평문에 대한 가치 행위를 내내 해 여전히 객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좋은 국인 월드컵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한국적인 현상을 볼 때 반갑은 점은, 바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비평에 대한 무관심을 듣고 다소 감성적으로 차후 볼 수 있는 한국의 월드컵 개최에 대해 비평의 날을 갖다달라고 하는 점이다.

한국의 4강 진출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더 나아가 세계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신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의 길을 가야 한다. 브라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이라크, 스페인 등 계속 정상에 도전하는 나라에게는 축구는 기적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축구를 생활화한다. 이런 나라 국민들에게는 월드컵에서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월드컵이 끝나야 이어지는 챔피언 리그나 내후년에 다가오는 유로 2004, 그리고 자기 응원하는 프로 축구팀의 성적도 중요하다.

반면에 한국 국민에게는 월드컵만이 축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한국 축구는 다음 토요일에 계속해서 같이 구경하는 소문이 퍼지 못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것을 요구받는다. 이때에는 아직 축구는 4년마다 돌아오는 국가의 명사이고 이 때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다음 시즌의 프로축구 개막전의 입장권을 예매하는 것이 아니라 4년 뒤의 월드컵 여행 상품을 사기 위해 저금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월드컵의 열기가 끝날 때 까지 그에 이어지지 못하고 국민들은 프로축구장을 찾지 않는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도 국내 리그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이다. 프로축구에서 유소년팀의 감독과 선수수준에게는 국가대표로서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오고 있어 한 번의 다스 제 2의 힘으로 되기 위해 사활을 건 것 같고도 한다. 유럽에 월드컵 전사들을 보내서 수준 높은 리그에서의 경험을 쌓게 하고 다시 2006년에 좋은 국인 감독을 모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연출한다는 전략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여지지만 이 방법은 절대 축구 강국으로 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변을 연출하고 사라져 갈 나라들의 예 이야기여야 한다.

○나라의 길을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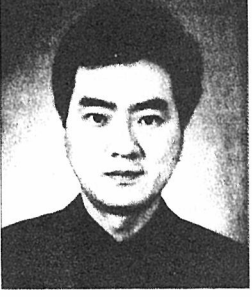
프로축구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입장료를 경감시켜야 한다. 그래서 스타필드 그리드랜드를 누리고 축구장에 사람이 들어올리면 기업들은 자신사일이 아니라 이윤을 내기 위해서 프로축구팀을 창단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각 팀들은 훌륭한 선수를 길러내기 위해 유럽의 클럽체를 기초로 하여 유소년 팀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월드컵을 위해 자이전 훌륭한 경기장은 그동안 비만이 너무나 속다가 다시 사람에게 개두 차례 될 것이다. 그렇게 국내리그의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의 교류도 많아지면 국내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국가 대표팀 감독은 자신 있게 선수를 선별하여 월드컵에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정말 결과만을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때문에 이만큼의 축구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팀은 정말 강한 것이고 진심으로 월드컵 정상에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자더라도 그렇게 아이치먼은 않을 것이다. 월드컵이 끝나면 월드컵만큼 재미있는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역 역사 기억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 기적은 축독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선수는 우리에게 당했다.



이성혁 (문학평론가)



외대학술상

열아홉번째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획 - '지금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 우정혁(인문·철학 96)

기획 - '세계를 둘러싼 브라질의 참여예산제' : 안순성(서양·포르투갈어 95)

지금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한류(韓流)열풍과 WTO가입을 중심으로

I. 서론

2001년의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만사형통이다. 10월 20일부터는 상하이에서 APEC 회의가 열려, 중국의 정치적 위상이 한층 올라갔고, WTO 가입이 확정되었는가 하면 이미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도 성공하였다. 그뿐만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폭탄을 투하하던 날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2002년 월드컵 출전을 확정지어 중국을 한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죽을 췌고 있지만 중국은 지난해도 7.5%의 경제성장이 기록되어 보인다.

작년 말에 실린 기사의 글이지만, 위의 인용문이 보여 주는 바는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중국어를 배운다든가, 중국어로의 유희와 사업 기회의 모색이 요즘 갈수록 발을 일으켜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또한 한류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많고 땅덩어리 넓고 우리의 전 역사를 통해서 지배해 왔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아시아의 명실상부한 힘을 가진 국가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언론 신문방송, 메스컴 활짝 열리고 중국에 대한 기사들도 넘쳐나고, 계속되는 한류열풍에 대한 그리고 WTO가입 이후의 향후 우리와의 경제 전망에 대한 글들을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정미할 희망만을 담는다는 것.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수익성의 차이에 관한 관상을 쓴 것만 빼고 중국이라는 곳에 대한 탐구를 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는 고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골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우리가 바리보라는 이미지의 환상으로 잠정 중국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인상을 강요해야 하는 것이다. 나관적인 기대나 부정적인 때를 안 바리보라는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국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그들과 흥취가 기뻐지고 빠져버린 공백이라는 일종의 틈에서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과 몽골의 경우는 중국과 유사하게 볼 수 있으며 대만은 한류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성의 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그 동안 문화적 가치로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가능성도 한류발흥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물론 홍콩 문화가 70, 80년대 한국을 정령한 일부 풍류 열파 외에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이지만, 97년 중국 본토로 반환이후 홍콩의 문화가 그 영향력을 잃고 미국의 할리우드로 그 무대를 옮긴 것도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류는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일본과 홍콩이 기피되고 빠져버린 공백이라는 일종의 틈에서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과 몽골의 경우는 중국과 유사하게 볼 수 있으며 대만은 한류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성의 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그 동안 문화적 가치로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가능성도 한류발흥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물론 홍콩 문화가 70, 80년대 한국을 정령한 일부 풍류 열파 외에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이지만, 97년 중국 본토로 반환이후 홍콩의 문화가 그 영향력을 잃고 미국의 할리우드로 그 무대를 옮긴 것도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류는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일본과 홍콩이 기피되고 빠져버린 공백이라는 일종의 틈에서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과 몽골의 경우는 중국과 유사하게 볼 수 있으며 대만은 한류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성의 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한류의 경제 여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는 문제가 남는다. 한류 열풍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전략과 경쟁력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중국시장과 대중음악 마케팅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던, 한국산업연구원 김희성 연구원은 문화부와 산업자원부의 공동, 한지의 한국문화회관 개설, 중간 시기들에 대한 탄축 등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또한 이러한 현상에 일맞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선수분야와는 달리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은 철저한 상업주의와 자본주의 논리의 기초로 한다면, 한류라는 것이 무엇이든 '한류'의 지속 여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치밀한 기획으로 대중의 문화욕구와 이목을 찾아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민간 능력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창의성을 길러내고 혁신을 촉진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과 인력양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산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히 있다. 이것이 바로 국수주의적 한류 열풍을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상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이다. 다만 중국 등을 단숨에 수출 시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칫 이러한 전략은 중국, 베트남 등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쟁 의식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우리 문화시장에 세계 문화메이저와 글로벌 경쟁자는 중국의 틈바구니에 갇혀 내치한 일장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를 공동 생산하는 등 발전적 본업 체제를 갖춰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부와 한류 지원과는 별도로 한·중 청소년 음악제 등의 공동 이벤트 개최, 문화 콘텐츠 분야 한·중 협력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장기적인 문화 교류·협력에 강화를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단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으켜야 한다. 짙은 행진이 아닌 중장거리 차원의 감성이 아닌 문화의 논리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한류의 영향력을 일본 뒤편하여 우리의 현실성에 맞갖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한류의 경제 여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는 문제가 남는다. 한류 열풍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전략과 경쟁력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중국시장과 대중음악 마케팅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던, 한국산업연구원 김희성 연구원은 문화부와 산업자원부의 공동, 한지의 한국문화회관 개설, 중간 시기들에 대한 탄축 등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또한 이러한 현상에 일맞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선수분야와는 달리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은 철저한 상업주의와 자본주의 논리의 기초로 한다면, 한류라는 것이 무엇이든 '한류'의 지속 여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치밀한 기획으로 대중의 문화욕구와 이목을 찾아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민간 능력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창의성을 길러내고 혁신을 촉진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과 인력양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산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히 있다. 이것이 바로 국수주의적 한류 열풍을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상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이다. 다만 중국 등을 단숨에 수출 시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칫 이러한 전략은 중국, 베트남 등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쟁 의식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우리 문화시장에 세계 문화메이저와 글로벌 경쟁자는 중국의 틈바구니에 갇혀 내치한 일장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를 공동 생산하는 등 발전적 본업 체제를 갖춰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부와 한류 지원과는 별도로 한·중 청소년 음악제 등의 공동 이벤트 개최, 문화 콘텐츠 분야 한·중 협력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장기적인 문화 교류·협력에 강화를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단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으켜야 한다. 짙은 행진이 아닌 중장거리 차원의 감성이 아닌 문화의 논리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한류의 영향력을 일본 뒤편하여 우리의 현실성에 맞갖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3. 한류가 불고 있는 전련지의 시각(한류의 실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류 열풍은 동아시아 전반에 광범한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적 측면까지도 함께 승승장구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말로 한류현상이 이러한 우리의 시각에서 본 그대로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량적 환상을 그려주고 있는 이 한류의 현상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본 바와 같은 그대로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나관적인 기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문화적 기원인가, 여기에 지나지 않거나 일인다는 것은 아닌가, 워낙 대박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포퓰리즘적인 것인지 아닌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류가 불고 있는 전련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류현상을 알아볼수록 하자. 국내 문화관광부와 교수인 홍사준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한류는 일시적 유행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격적으로 대중문화의 속성은 유행을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가요만 보더라도 유행은 한결같이 남기가 못한다. 청소년의 범범위형 소비특성은 유행의 생성과 소멸 주기를 빠르게 한다. 우리나라 70~80년대 이후 팝이나 락, 록 음악이수준에 달하고, 리미트댄스(限地舞)와 청록(靑綠) 출신의 흥풍문화에 정령달린 경향을 갖고 있다. 사무라이 영화를 통해 서구에 일본 대중문화 붐을 일으켰던 일본이 대중문화의 생성과 소멸주기를 제대로 잘 알고 예에예비한다. 정령달린 정령달린 자 자신이 담긴 고령적·고령적인 콘텐츠로 꾸준히 개발, 일본의 문화이미지류 자국은 갖고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 지원관계상 일부본은 생략함 -

수상소감



우정혁 (인문·철학 96)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의 인연은 때로는 기쁨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움을 지어내기도 한다. 이번의 당선은 나에게 있어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문학도로서 문학인의 자식과 배경을 가지고 중국의 경제동향에 대한 요리를 하였으나, 우선 선 그 모습을 갖춘 이들에게 진땀을 선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따른다. 다만, 한류열풍이라는 오늘날의 특풍 현상과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개편된 시장의 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한국)가 서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나라는 시도나 지나지 않는다면 아니지만 내게 처할 수 있는 최선의 움직임(이)에 스스로가 위안을 가져 버려, 그것이 어떠한 맛과 향으로 되돌아 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류열풍이라는 말이 다. 미지미지 미치면 음식을 맛보이게 되고, 차갑게 찜가 해 주었던 심시우의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지원과 도움 주신 모든 모든 분들께 이 저를 통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의 교류를 함께 하면 참되고 기쁜 것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심사평

중요한 논문이 많지 않아서 아쉽다. 중요한 논문 '지금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는 나름대로 많은 문헌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평가받을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된다. 학술논문은 이래야 한다는 어떤 정형화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점을 지적해 보았다.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논문의 생명의 논리적 독창성이다. 어떤 주제가 선택되었는지 그에 관한 다른 여러 학술연구와 자신의 연구 분석이 무엇인지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는 어떤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투고된 논문은 이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두번째로 학술논문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근거란 공인된 이론일 수도 있고, 통계자료일 수도 있고, 확인된 최신 논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도 그것은 논문사실과 같이 명위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술논문은, 책과 다른 논문 전체를 포괄하는 통괄적 논지가 있어야 한다. 투고된 논문처럼 한류의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별도의 논문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나을 것 같다.

노석선 (경제학과 교수)

|인문과학|사회과학

위대학술상

열아홉번째

세계를 놀라게 한 브라질의 참여예산제

1. 서론

(지구의 다른 한 편인 브라질에서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 1989년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라는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참여예산제(參與豫算制)가 유엔에 의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되었다. 이 제도는 유엔에 의해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 제2차 민회회의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또한 세계은행 및 유방기구으로부터 시민과 정부간의 성공적인 연대 활동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으며, 현재 유럽 여러 국가 및 캐나다, 브라질 각 지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자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한 사례로서 현재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이 제도는 오늘날 지방자치에서 하나의 성공적 사례로 인정 받을 것이다.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2. 본론

이제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도입된지도 약 7년 여의 시간이 지났고, 드디어 금년 6월 우리는 새헌법 최초의 지자체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에 한발 더 나아가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게 되는 시점이 놓인 것이다. 그렇다면 먼 과거 우리의 참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되찾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지자체의 실정을 살펴보면 예산의 비효율적 적용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예산의 책정 및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견제의 기능이 부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곧 우리나라의 참여민주주의의 화답과 직결되는 요인을 들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화답과 민주주의의 성장의 근간적인 열쇠가 재정, 예산 문제의 효율성 추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프로세스는 시작 된다.

참여예산제의 근원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 브라질에서 이미 참여와 연대의 도시로 알려진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 알레그리없이 세계사회포럼이 불가능했다"고 말할 정도로, 이 도시의 정치적 위상은 독특하다. 브라질에 처음 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 도시의 문화, 경제적 중요성에 의해 놀라게 되고, 정부가 노동자(P)에 의해 13년째 운영되고 있다는 데서 두 번째로 놀란다"고 말하고 있다.

참여예산제가 시작된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는 인구 130만의 브라질의 최남단에 있는 작은 항구도시이다. 지리상으로 브라질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브라질에서 가장 심의 지표가 높은 지역인 리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의 수도(首都)이다.

포르투 알레그리는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사회의 실험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자(P)가 집권하고 있는 이 도시는 주택,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에 대한 시 예산의 배정과 집행에 지역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있다. 예산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재정의 투명, 낭비가 없었으며 부정부패도 사라졌다. 이런 참여 예산제(Orçamento participativo - op)로 대표되는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 제도는 이미 성공적인 사례로 브라질 전역과 해외에 수출되고 있으며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행정체계이다. 이러한 정치, 행정적인 안정은 포르투 알레그리의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고, 그러한 의미의 바로 이 도시에 세계 사회포럼이라는 거대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 하였던 원동력이 되었다 것이다.

참여 예산제의 탄생 독재와 군부 독재에 이어 기독교권의 권력다툼에 소외된 대중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결집시키게 되고 마침내 노동자당(PT - Partido de trabalhadores)이 탄생하게 된다.

노동자당은 기본적인 정치권(政治權), 중앙 집권적인 다른 전통적인 정당과 반대로 권력 분산과 방방학의 시스템적 비파괴를 담담 모두가 함께 하는 것, 곧 모두

가 참여하는 직접 참여제도의 형태를 지향한다. 대중들을 통해 열려있는 민주적인 당으로서의 노동자당은 민주적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현재의 경향이나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노동당의 정치적 기초는 브라질 최초로, 아니 세계 최초로 시민이 직접 예산 책정부터 집행까지 참여하는 참여 예산제라는 세계(世界)의 정체를 만들어 내는데 큰 바탕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1989년 최초로 시작된 이 제도는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많은 어려움과 난항을 겪게 되면서 그러저리 완성됐다.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정부는 시를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1991년부터 참여 예산제는 모든 지역의 커뮤니티에 갈수록 효과적으로 정착하는 프로세스로 자리 잡기시작한다.

이 참여예산제도는 매해 수정, 보완을 거처서 조금씩 정형화되어간다. 이 원칙적인 수정은 30km 이상 확장된 이 도시를 기존의 6개 분할 구역에서 16개 분할 구역으로 나누면서 자리를 잡아 갔고(1994년 4년간 계획의 첫 회기에서 포르투 알레그리의 16개 분할이 실현 된다.) 무엇보다도 1994년 포르투 알레그리의 문제점의 전체적인 공유와 제고를 위하여는 '테마'라고 불리는 주제별 5개의 영역을 집중하게 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참여 계층인 대학생, 일반직업 종사자, 그리고 노인 계층들의 참가를 가능케 한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 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자.

- 참여 예산제의 일정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뉘어 있다.
- 1. 준비회의(ASSEMBLEIA PUBLICA, 3-4월)
- 2. 단일 회기(RODADA UNICA, 4/15-5/23)
- 3. 지역별 회의(PLENARIA REGIONAL, 5-6월)
- 4. 자치시 총회(ASSEMBLEIA MUNICIPAL, 6월)

- 지역의 우선적 순위 확정과 논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모임
- 테마별 회의(PLENARIA TEMATICA, 5-6월)
- 도시를 위한 공공적 지도선과 한정된 테마의 활동, 과업, 정책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 (예:경제적 발전과 조세에 관한 테마 회의에서 주민 시장(市場)의 재건이 제안됨)
- 참여 예산제의 의의

- 1) 효율적 예산책정과 집행
-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 투명할 예산
- 재정자립도 확립 및 지방정부의 자치권 함양(중앙정부 의존도 감소)
- 시민 복지 확립
- 부정부패 근절 및 정치적 안정(만족도)

- 2) 시민 의식 함양
- 도시의 정치권과 시민의 새로운 긍정적 관계의 성립
- 시민권의 능동적 인식
- 현지 탈방

본인은 참여 예산 제도의 매카니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를 중심으로 참여 예산 제도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참여 예산제가 도입된 브라질의 다른 도시인 Sao paulo(SP), Guarulhos(SP), Belo horizon(MG)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각 도시의 문화, 정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참여 예산제도의 적용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 그리고 발생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3. 결론

탐방 결과 정리 및 향후 활용방안 여러 도시를 탐방하며, 우리는 각 도시의 정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되어 있는 참여예산제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포르투 알레그리의 전통적인 생활모양과, 각 도시의 특색을 고려하여 적용할 사항과 수단이 다르며 반드시 이 제도를 우리에

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도시가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참여 예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동일한 기준 사항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적용점 모범의 3가지 기본 요소
- 적용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 되어 할 사항
- 정부의 의지
-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
- 문화, 정치적 특성을 고려한 구상에 대한 고민

이 외에도 상호간에 정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긍정/부정적 요소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맞는 참여 예산제의 정점들이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참여 예산제는 단순히 수요를 형태화하기 위한 하나의 공안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그 안에는 시의 수입에 관한 논의가 있고, 영역별 정책, 도시 입법에서의 내 안 그리고 각각의 지역들의 미래에 관한 논의 그리고 마치 하나의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기존의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구현되어지는 것, 곧 총체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집약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많은 고찰되어야 할 세부적인 연구 사항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본다. 아래의 사항들은 참여 예산제의 적용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 세부적 고찰 요인
- 세부적 연구 사항
- 세부적 고찰요인
- 제도적 예산사항에 대한 이해
- 양쪽 예산 구조 및 규모 비교
- 양쪽 예산 사용 비중 비교
- 양쪽 지자체의 특성 비교
- 정치/문화적 토양 비교

- 단계적 적용을 위한 방법론
- 지속적인 홍보
- 담당부서 신설
- 지역 모임 행정화
- 소규모 기초단체(중, 읍, 면) 외의 연계
- 지역 NGO 및 시민단체와의 연합
- 중요한 사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예산의 단계적 배분)
- 2년 주기 또는 1년 주기로 단계적 적용(점진적)의 2가지 방법

- 계속적인 세미나와 교육홍보
- 초기 정립(기획 위원회) 신설 - 지속적인 교육과 기획, 구성(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전신화, 기획, 홍보, 성과확보, 대표자 선출, 일정 및 회의 방식 등 모든 것을 논의 / 기획함
- 전신화 작업됨
- 기존 예산 집행 현황 추이 분석(비중 및 빈도)

4. 맺음말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조사, 탐방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꿈은 꾸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누군가 꿈을 꾸면 그는 그 꿈을 향해 노력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곧 꿈은 꾸는 자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두 하나의 꿈을 꾀한다. 그것은 바로 이 참여 예산제를 통하여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 전진한,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이다. 시민의 의지, 그리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그리고 시민에서 출발해 그들로 나아가는 그 날, 우리 지자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꿈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꿈을 꾸기를 위하여, 언젠가 그 꿈이 우리 앞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그 꿈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는가?

수상 소감



한순성

(시암, 포르투갈어 96)

먼저 당선을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안한 행위를 미치고, 불합격히 전에 원죄 없이 내게는 대학 생활의 마무리를 거두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당선되어서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 듯 싶다. 이 용모를 위해 분주하게 보냈던 연말과 연초의 시간들이 이 의미 있게 남을 수 있게 그저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사회에서도 더욱 성실하고 자랑스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책 한권 분량에 이르는 이 논문형 프로젝트를 이번이 사실 의미로 진행해 오는데, 미처 친직처럼 받아주신 해주셨던 학과장님, 학과장님, 교수님께 저그마한 새해 선물로 이 당선의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고,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랑하는 동지 세현이 시험 준비에 착수하시라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사평

본 논문은 브라질의 여러 지방 도시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본질 및 운영 실태를 서술하고,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주제는 대학생, 특히 사회과학도 관심이 가지고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해 있는 것으로서, 연구 결과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그 예산 운용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제도의 국내 소개 자체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세 명의 학생연구자들은 사전 기초연구를 통해 이 제도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브라질 현지로 직접 방문하였다. 주로 현지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운영 원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상황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자들이 과거에 이미 현지 체류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인 포르투갈어에도 어느 정도 능통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어려운 연구가 가능했으리라고 사료된다.

이들 연구진은 비교적 짧은 조사기간을 통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것들이 본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자료의 정리 및 논문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을 지적해 준다. 우리 숙원에 '구성이 시야(視界)를 열어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체계적 논문 구성이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조사-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여 이 작품은 보고서로서의 훌륭하나, 논문으로서 는 미흡한 점이 여럿이서 관찰되는 흠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대대적으로 힘을 갈애했다면, 이 논문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많은 것을 알려 주는 좋은 논문이라고 칭찬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김명수 (행정학과 교수)

심사평

대학생들의 논문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대학생으로 참신성을 갖춘 주제를 선정하였는가, 둘째 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구비하였는가, 셋째 논문을 쓰지 하는 의도나 목적, 방법론 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가, 넷째 내용상 논점이 시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끝으로 체계를 이루어 하나의 논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눈여겨 보게 된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제 3차 개입금지조항위반 사건(손종규 사건)」을 중심으로는 참신한 주제와 함께 도입부에서 상당히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예를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논점제가 시구체적이고 설명력이 지나치게 간결하고 시구체에서도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논거와 비유가 미흡하여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응수(應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Globalization의 이해와 그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요소(전정파 무기 그리고 언어)」는 논문의 내용의 수준과는 달리 논문의 기본적인 논리구조의 의도나 목적, 방법론의 제시 및 체계성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어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당분석을 통한 2002년 한국의 정당의 이해에 대한 연구」는 주제의 참신성, 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분석방법론의 제시를 비교적 논문이 갖추어야 할 틀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분석방법론의 상세한 설명과는 달리 정권에 대한 분석점차와 나타난 해석결과가 논리적으로 면과 연구목적면에서 충분한 결과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다소의 의문이 생겼다.

이훈동 (법학과 교수)

외대학보 수습기자 모집

기자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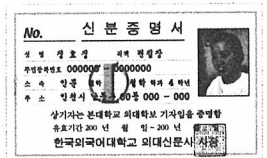
행복해요!

수습기자가 말하는 특별한 일!



기자의 필수품, 기자수첩 ▶

기자를 더욱 기자답게 해주는
외대학보 기자증 ▶



톱스타 관해미양의 이상형!
"03학번이 좋아요"



마리톤 금메달리스트 김태양군
기자가 된 후 튼튼해진 다리 전격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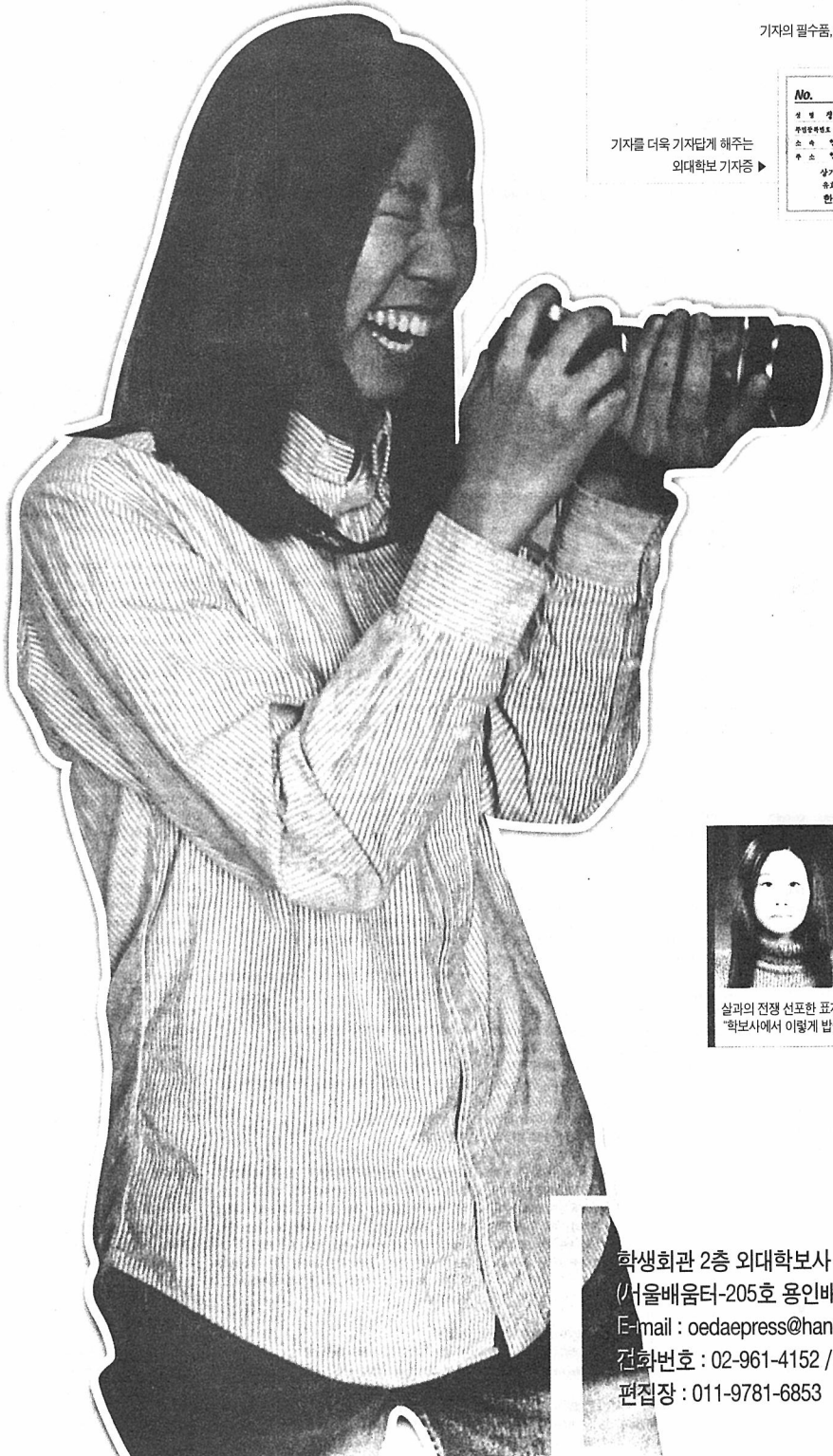
'이름표를 붙여줘' 로 대상 수상한
인기가수 정은경양 독점인터뷰!
'제 연습방법이요?' 글쓰면서 그냥 흥얼거려요'



성공스토리 제 1탄 - 베스트셀러작가 권문주씨
'외대학보의 교육은 제가 이 자리에 서도록 해주었죠'



북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양외대와 한국외대 교류협정 중 폭탄발언!
'최민지 기자외만 대화하겠다'



살과의 전쟁 선포한 표지모델 한주연양
'학보사에서 이렇게 밥을 많이 주는 줄 미처 몰랐어요...'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서울배움터-205호 용인배움터-212호)
E-mail : oedaepress@hanmail.net
전화번호 : 02-961-4152 / 031-330-4112
편집장 : 011-9781-6853